

행복한 책 읽기

천명관 '고령화가족' <문학동네>

소설가 천명관의 첫 장편 '고령'을 읽을 수 없다.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라더니, 영화 같은 장면 전환에 장쾌한 시공간, 초현실적 상상상을 넘나드는 풍부한 서사 구조가 신선했고 술술 읽히는 문장도 좋았다.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이야기꾼의 입담에 매료되어 다음 작품을 기다렸는데.



물론 '고령'만큼은 아니었다. '나의 삼촌 부부스 리'까지도 데 뷁작을 뛰어넘지 못한 듯 보였지만, '고령화가족'은 나에게 권한 만했다. 단어를 떠올리지만 해도 낯설 이 시큰해지는 '가족'과 '엄마' 이 야기다. 할 줄 아는 거라곤 영화 밖에 없는 40대 후반의 사내가 영 화에 실패하고 경제적 파산자가 되어 엄마의 닭장 냄새에 톳겨 리며 집으로 들어간다. 24권 연립 주택에는 폭력 강간 전과자 120

가족의 다른 이름

킬로 50대 초반의 백수 큰아들이 진을 치고 있다. 게다가 습관처럼 바깥을 피우고 이혼당한 여동생 까지 여고생 딸을 데리고 와 기막 혀 동거에 합류한다. 짧은 날 방황으로 가솔했다가 속을 차려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늙은 엄마를 봉양해야겠다는 효심도 아닌, 자 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패배 한 자식들이 먹고 살 능력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머지 폐잔병처럼 제 발로 기여들어온 것이다. 평균 나이 49세의 가족은 매일같이 찌 질한 이유로 싸우고 지지고 볶으 며 살아간다. 중심에서 비껴나간 마이너리 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 는 잉여인간, 누구도 이겨본 적 없 는 사회적 부자에 비윤리적 행위 마저 일삼는 풍가루 가족을 삶은

미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있다. 인간의 생명이 엄마 의 자궁에서 시작됐듯이 엄마는 삶 의 근원이자 모태이다. 엄마의 삶에도 핑크빛 비밀이 숨어있지 만 늙은 자식들의 밥과 고기를 챙 기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다. 예술작품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모습에 집중하여 과장하기 마련 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보편 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개인적 의 미의 가족사를 다뤘다. 그렇다고 엉뚱하게 내치친 밀바닥 인생이 라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들 자화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아득바득 지나다 놓쳐왔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삶은 어차피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삶은 목적이 목 표가 아니라 스쳐가는 모든 순간 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역사는 승 자나 패자의 것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던가.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손님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작가들이 서운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대인예술시장을 만들 어온 작가들의 노고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요. 임대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가 들이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들어와 창작활동을 이어갔는데 해마다 올려달 라고 해요. 저만 해도 이전보다 두 배를 올려줘 야할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작가 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더 이상 대인예술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요.”(대인 예술시장 입주작가)

시장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서 제외 정기수입 없는 작가에 임대료 폭탄

광주 대인예술시장 입주 작가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의 핵심이 되는 작가들이 시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고 임대료 폭탄 등으로 작업실을 내 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시장을 떠날 것을 고민 중이다. 작가들이 시장을 떠날 경우 '전통'과 '문화·예술'이 혼합된 대인시장의 취지와 이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작가들이 시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 를 시작으로 하나 둘 모여들어 동지를 틈 작가 들은 어느새 30여명으로 늘어 자발적 창작촌이 형성됐다. 그렇게 모여든 작가들은 작품 활동 을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뜬 시장을 예술시



대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던 작가들이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고, 작업실 임대료도 대폭 오르면서 작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인예술시장 만든 작가들 설 자리 잃어간다

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밤낮으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가는 문화관련 종사자들도 많아졌다. 작가들 때문에 시장이 활기를 얻고, 점포 임대 문의가 잇따르면서 처음에는 작가들을 이방 인으로 여겼던 상인들도 차츰 작가들을 인정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 는 '아시아문화예술융합성' 프로젝트 등에서 사실상 입주 작가들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 됐다. 입주 초기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작가들이 이제는 재단이 만든 프로그램 에 게스트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이다. 작가들은 최근 진행되기 시작한 광주 대인문 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서도 외면받았다. 2015

년까지 3년 동안 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인시장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과 추진 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구청과 상인회, 사업단을 주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작가협의회 '다다' 관계자는 "대인시장이 문화관광형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작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함께 논의하 고 고민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도 문제다. 작가들은 초기에 작고 열악한 공간이지만 매달 10만원 안팎 에 대인시장에서 자신들의 작업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시장이 활기를 얻고, 곳곳에서 점포 임대문의가 늘면서 임대료

가 2~3배 오른 것이다. '다다' 관계자는 "월 10만원이면 쓸 수 있던 공간이 이제는 최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을 줘야만 한다"며 "공동 화장실,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물까지 어는 등 이렇게 열 악한 시설을 누가 그 돈을 내면서까지 사용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부 작가 들은 동구 푸른길 인근 등으로 작업실을 옮기 기도 했다. 대인예술시장을 떠난 한 작가는 "이 같은 추 세만 끝 시장 작가들은 모두 빠져나오게 될 것" 이라며 "작가들이 없는 대인예술시장은 제 역 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입주 작가 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나간 시간의 상처, 잔잔한 울림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승자 첫 시집 '곡두'

광주일보 신춘문예(2000년) 출신 박승자(55·사진) 시인이 첫 시집 '곡두'(애지시 선)를 펴냈다. 사전적 의미의 '곡두'는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나 사물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다 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시집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가슴 아픈 존 재들을 향한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지 난 시간의 상처와 슬픔은 시적 상상력과 결 합돼 독특한 울림을 낸다. "어여쁜 과수대 울 밑에 분꽃향이 분분 한 밥이뿔/ 독 뚜껑 뒤집어 무딘 칼을 속속 같곤 했다/ 달은 바가지 형상으로 텅그러 니 어둠 속에 팽개쳐 있을 때/ 또아리 풀고 소리 없이 답장 밀을 기어 나가는 구렁



이~" ('곡두' 중에서) 표제작 '곡두'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낯선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어여쁜 과수대"와 "또아리 풀고 소리 없 이"는 설화적 상상력 이 드러난 이미지로 시인의 시적세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정서는 더러 가슴에 한을 지닌 어머니의 마음으로 집약되기도 한다. 시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 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했던 당신의 말을 점점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며 그리움을 애들러 표현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하는 '신한카드 Love Concert'

14일 오후 6시 염주체육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하는 '신한 카드 Love Concert(러브 콘서트)'가 오는 14일 오후 6시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개최 된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수원 등 주요 도시를 투어하며 진행 되는 러브 콘서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는 문화 이벤트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차별 화 전략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올해 광주 공연은 YB(윤도현밴드·사 진), 박정현, 예곡하이, 다비치 등 실력과 가수들이 출연한다. 신한카드 스마트 콘텐 츠를 통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신상품 큐 브·폼보를 영상화 한 게임 부스 등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한다. 특히 광주 러브 콘서트는 비엔날레와 연 계해 콘서트 관람 고객에 대해 비엔날레 관 랑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한카드 소지 고객에 한해 디자인비엔날레 관람시 20% 현 장할인 혜택을 준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 | |
|------------------|------------------|
| 본 점 062)227-9940 | 충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등록번호: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상표등록 : 41-0241299호

문의

061-375-2383

HP. 010-6656-0002